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서해 시집

시지태

머리말

요즘 모두 힘들 때 다친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싶어 부족하지만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집은 출판 이전에 지인분들에게만 드리는 미리보기용이니, 책으로 평생 소장할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시인 서해



목차

- 머리말 · 01
- 다(多) · 03
- 이런, 씨 · 05
- 눈물 나는 밤 · 06
- 시인의 삼원색 · 07
- 선 · 09
- 추운 밤 · 10
- 개성1 · 11
- 아파트 · 12
- “기쁨”, “행복”, “찾자” · 13
- 제목 없음 · 14
- 잠 못 이룹니다 · 15
- 사촌동생 · 16
- 별, 달 · 17
- 바람 · 18
- 꿈 · 19
- 교육 · 20
- 행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 21
- 웃음 · 22
- 요리 · 23
- 오해, 묘하다 · 25

다(多)

나무에서 잎은
항상 떨어집니다.
가을을 낙엽의 계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때 잎이 더
많이 죽어서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는
자주 떨어집니다.
여름을 장마의 계절이라
일컫는 이유는 순전히
그때 비가 더
많이 올어서일 것입니다.

말들은 원래 있는 것을
과장해서 적은 것이군요.

양이 많다고 해서
평가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평가받고,
평가합니다.

나도 다(多)입니다.



이런, 씨

사람들은 웃기다.

개기월식 본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네들이 만든 큰 건물들이

항상 달을 가리는데.

사람들은 미쳤다.

조용히 살고 있는 나무 마을을

강제 이주 시켜놓고,

울고 있다.

화난다.

나도

사람이다.

눈물 나는 밤

5월 중순 넘어

밤은 무엇을 간직할까?

초록 반, 검음 반

더위 반, 추위 반

정적 반, 바람 반...

이것을 느낀 하루는

추운다.



시인의 삼원색



시를 쓰기 위해,

상황을 만드는 시인은
좋은 시인이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해,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시인은
좋은 시인이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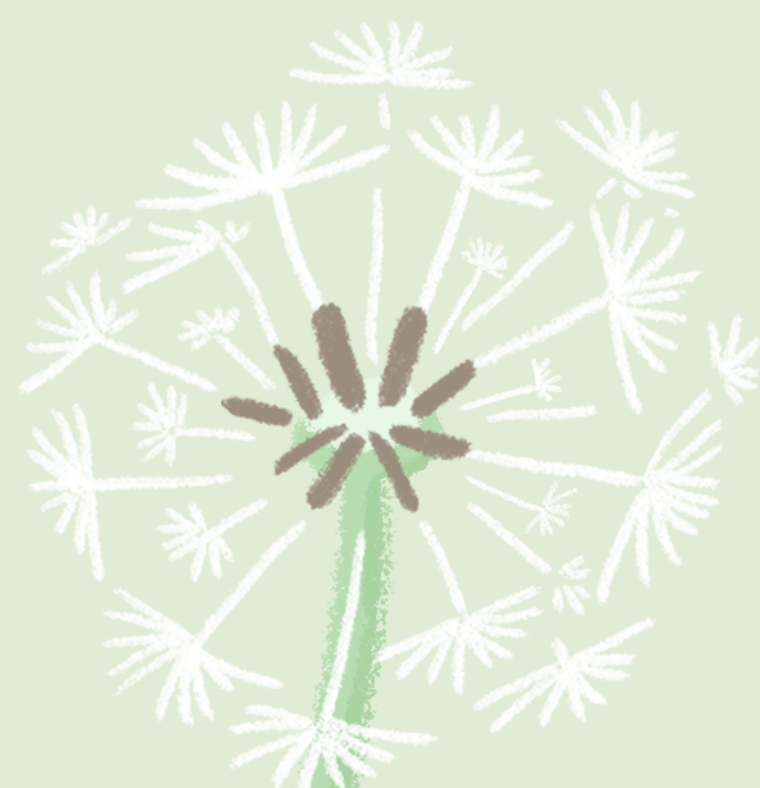


마음 저 멀리
한켠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 내는 시인은
좋은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연히 벌어지는 일을,



꾸밈없이,
보이는 상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

마음에 선을 긋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선을 긋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선 긋지 맙시다.





추운 밤

벽이 추워하니깐
넙쿨이 덩굴, 덩굴하게
벽에 이불 덮어주나 보다.

허공이 추워하니깐
거미가 줄, 줄로
허공에 보일러 놔주나 보다.

하늘이 추워하니깐
안개가 자욱, 자욱하게
하늘에 안기는 것 같다.

아니, 그런 것이다.



개성(個性)1

오늘은 누구의 마음으로
시를 쓸까.

너로 쓸까?

나로 쓸까?

그것으로 쓸까?

너로 써보자.

시를 다 쓰고, (그) 장본인한테 가서 묻지 말자.

개성 잃는다.



아파트

오늘도 퇴적암을 봅니다.

무슨 한층, 한 층마다
생물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층에서
생물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밖에 세상에도 들립니다.

이 세상이 소리로 채워진다면,
이러한 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관용으로 채워진다면,
이러한 싸움은 중요할까요?

오늘도 퇴적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쁨", "행복", "찾자"

“기쁨”, 모래 안을 뒤져볼까?

복잡한 모래 뒤져보니

저 깊은 곳에, “행복”

“찾자”



앵무새와 같이,

남의 이야기나 따라 말하기 싫다.

근데

어쩔 수 없나 보다.

지금 이거 쓰는 것도

남이 만든 한글로 쓴다.



잠 못 이룹니다

무엇이 무엇이

젓가락 때문인가?

후회 때문인가?

생각 때문인가?

이 중에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무엇인가가 잠 못 이루게 하군요.



사촌동생

동생아,
맨날 반짝이를
사달라고 하지 마라.

적당히 푸른 하늘에
적당히 떠있는
반짝이의 모습을
너의 마음으로 보고, 들어라.

동생아,
맨날 뽀뽀
하려고 하지 마라.

땅에 있는
뿌리처럼
많은 흙들이
너를 아낄 것이다.

동생아 동생아



별, 달

별과 달은

유심히 다른 듯합니다.

둘 사이,

거리, 밝기, 색깔, 모양..

별과 달은

무심히 같은 듯합니다.

둘이 서로 비추는

빛,

어두운 날이면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빛.

밝을 때도 같이,

어두울 때도 같이..



바람

멀리서

더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화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려고 고개도 숙여봤지만,

바람을 만났습니다.

바람을 만나고,

나는 바람이

나의 일부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욱 멀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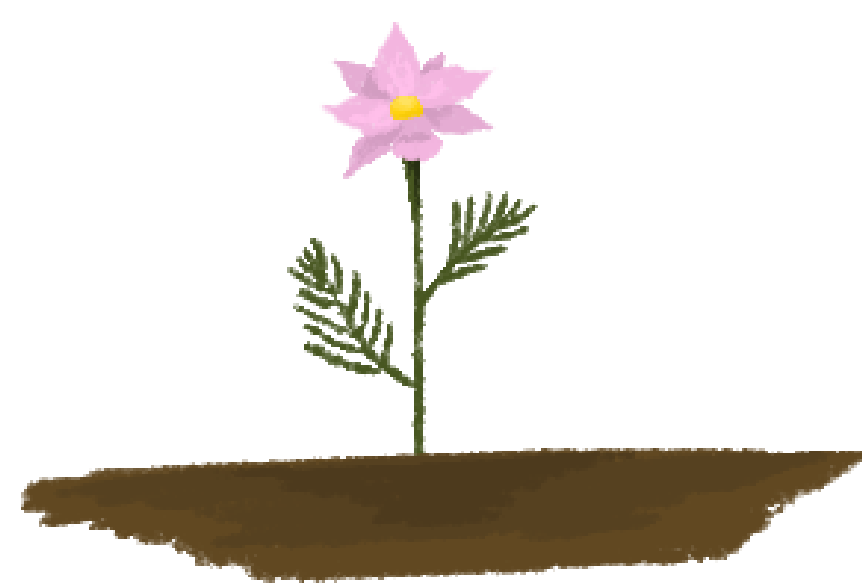
차가운 바람이 옵니다.



꿈

구해라

목마르지 않는
꽃은 시든다.



교육

개미에게

날아보라고 합니다.

날 수 있는 녀석은 따로 많습니다.

메뚜기에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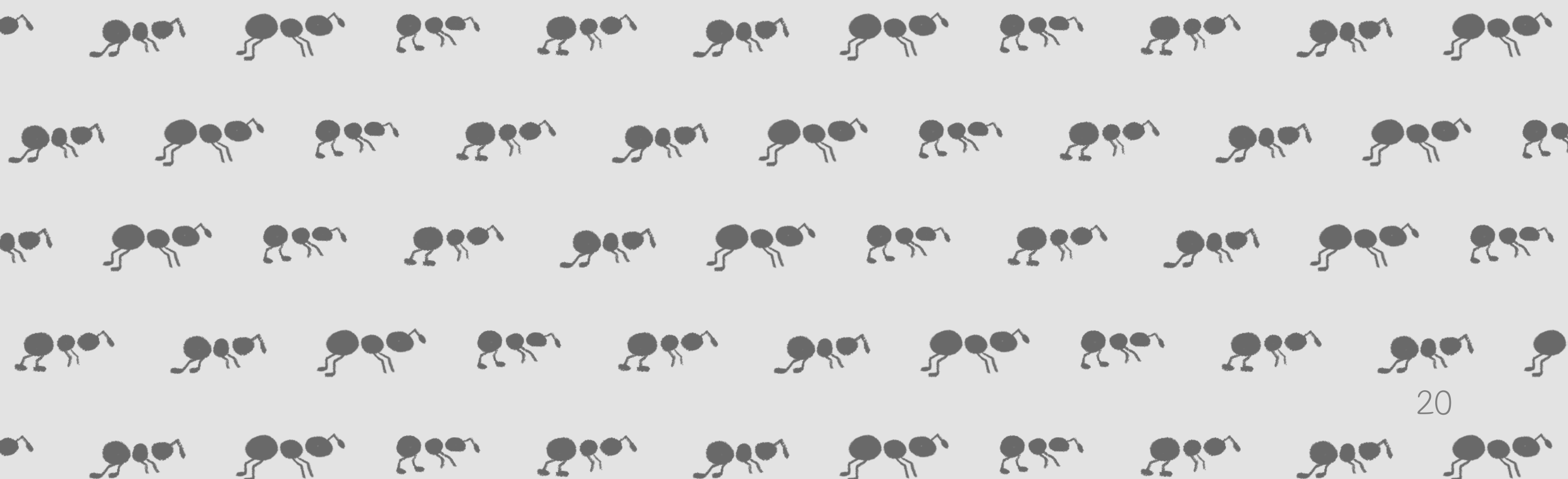
잎새들을 모아

나무를 만들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십시오. 먼저

일방통행이 아닌 4,50... 60차선,

아니 끝없는 차선을 꿈꿉니다.



행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행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마치 나뭇잎 사이사이에
보이는 하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행복이 저렇게 아름다운지요.

마치 초등학교와 가로등 사이사이에
보이는 별들처럼 저렇게 아름다운지요.

행복이 너무나 아름다운지요.



웃음

가끔은 힘들어도
웃어야겠습니다.

이빨 두 개 뽑은
아이들이 웃듯이.

지금 웃는 웃음이
이빨 두 개 자라고
웃을 때 낫설지 않기 위해.

요리

가을을 맞아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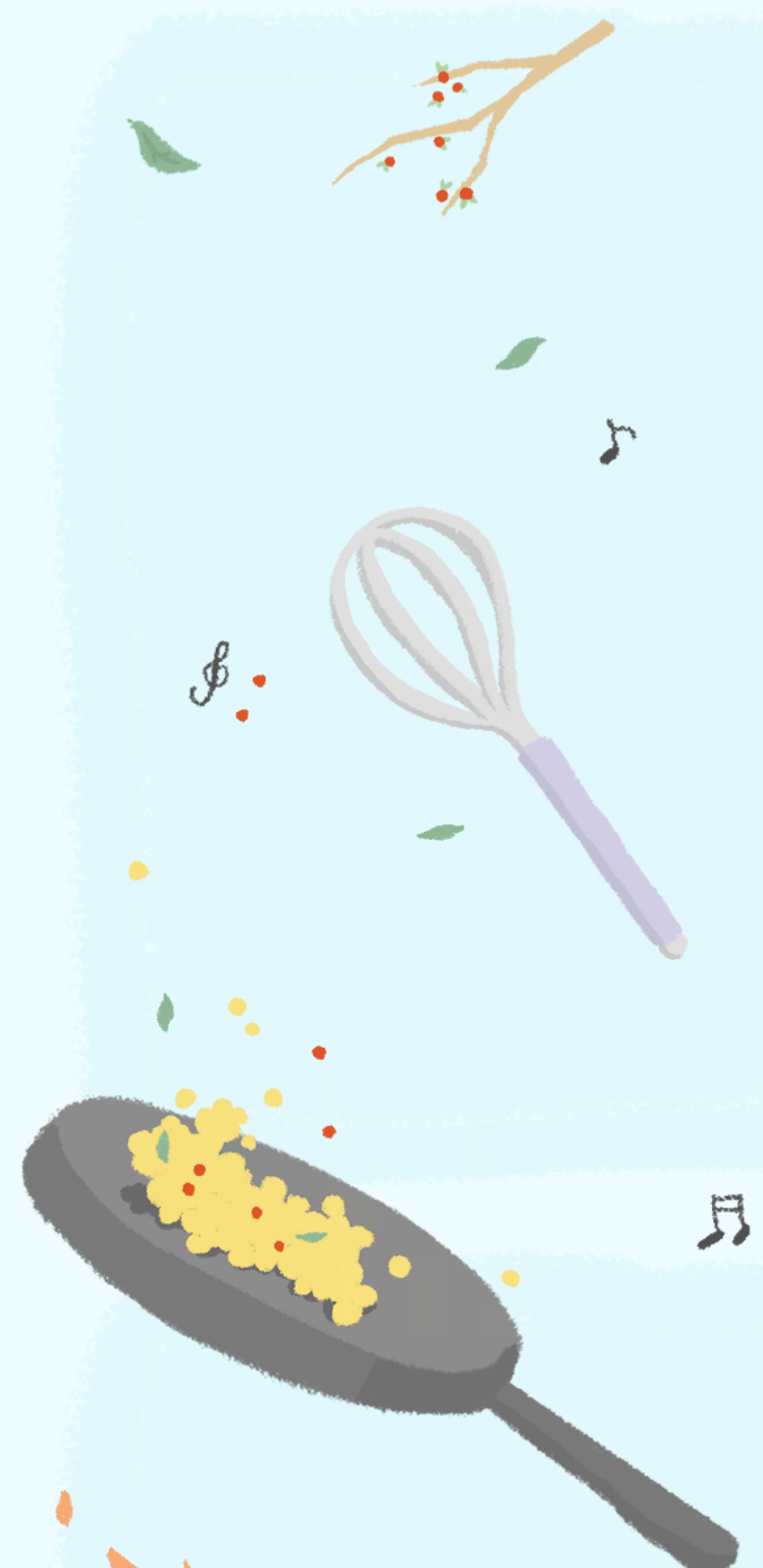
재료는
나무와 풀과 흙
바다와 바람과 하늘을
마음껏 사용해봅시다.

재료를
만들기 위한 요리 도구는
한글입니다.

먼저, 흙을 볶고
그 위에 싱싱한 풀을 놓습니다.

그다음, 건강한 나무를
풀에 넣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오래 두면 벌레가 옵니다)



일단 더운 요리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바다를 냉장고에 넣고 빼서
그 위에 신선한 바람을 놓습니다.



그 후, 구름 가루 뿌린 하늘을
바람 위에 놓습니다.

그럼, 차가운 요리 하나가
완성됩니다.



방금 만든
차가운 요리랑 더운 요리를
합하면 가을에 알맞은 요리가 됩니다.

(이 요리는 평소에 재료를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더욱 맛있을 것입니다)

추신, 요리는 재료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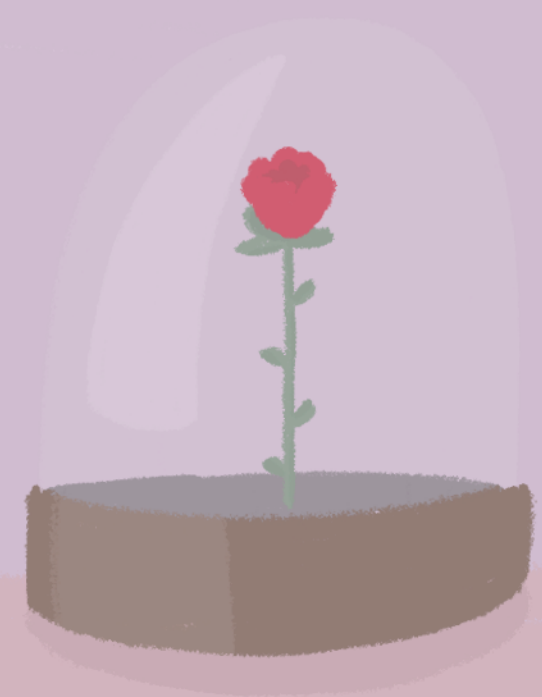
오해, 묘하다

오해는

사랑, 사람

묘하다

사랑, 사람



거름종이에 걸린 하늘

기획 태초에

편집 정진희

디자인 정상희

문의 general@cgtae.com



우리는 거름종이에 걸려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시지태